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4년 3월

선교편지 제 173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피아 (Pia)’는 아팔라야 예일교회가 건축되기 이전, 아팔라야 고등학교 ‘학원 사역’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여학생입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돌볼 수 없고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디고스 예일교회’에 출석을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 현재는 장학사역을 통하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팔라야 예일교회가 건축된 이후,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앞장서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매우 믿음직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성경 공부 또는 찬양 연습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나 먼저 상세한 사유와 함께 죄송하다는 연락을 해 오는, 이곳에서는 매우 드문 성숙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전에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소식을 모르는 상태이고, 어머니는 해외 노동자 (OFW)로 홍콩에 체류하며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대학교를 졸업하여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어린 두 여동생을 돌보고 공부하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피아’가 사는 동네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누전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피아’는 마띠 은혜교회 건축 현장에 있었던 저에게 급박하게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 중에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저에게 연락을 하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매콤한 냄새가 동네에 가득하고 주민들은 한편에 모여 허탈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자로 지은 허술한 집들이어서 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피아’ 외에 또 다른 교우 가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저를 보자 마다 눈물을 쏟아 냅니다. ‘피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로 많은 말을 대신합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해 주어야 할지 저 역시 가슴이 복받쳐 오르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 타 버린 잿더미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현지어 ‘성경’이었습니다. 새까맣게 그슬려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지만, 성경 중간을 펼쳐보니 바로 ‘시편 23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절망스러운 잿더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그 어느 많은 위로의 말보다도,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과 큰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 교우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화재를 당한 두 가정을 위해 필요한 생필품과 옷가지를 모아서 전하고,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 바랑가이 책임자들을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아팔라야 예일교회'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마을 책임자가 화재 현장 가까이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고 이전과 같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저들을 위로하고, 빠르게 회복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통을 당한 교우들이 이 환란을 통하여 더욱 더 주님을 가까이하며, 절망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1-2)



디고스의 세번째 교회인 '마띠 은혜교회'의 건축을 시작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전, 친교실, 교육실의 벽 공사를 오랜 시간을 거쳐 대부분 마쳤고, 바닥 기초 공사도 성전과 친교실을 마치고, 이제 교육실만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가장 복잡하고, 힘든 '지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위에 '십자가'도 세워 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매 순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습이 다른 지역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곳 선교지에서 겪는 '약속', '신용', '계약', '시간' 등의 개념은 이미 체득되어 알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서,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계약, 대금, 품질, 일정 등이 계획과 예상을 벗어 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주 빈번하게 '약속과 신용'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곳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고, 정착한지 16년이나 되는 제 자신에게 물어볼 정도입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를 건축할 때, 그 어느 것보다도 '지붕 공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공사와 달리 '지붕'은 교회 건축 시공 업체가 아닌, 지붕 설치 전문 업체에 전체 공사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곳 선교지에는 아직 지붕 재료를 자체 생산하거나, 제작하는 대형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몇몇 지붕 샘플과 카탈로그를 갖다 놓은 소규모 업체들을 통하여 대도시의 큰 업체와 연결하여 지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즉, 현지 영업점을 통하여 구매를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타지에서 지붕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영업점들이 지붕 설치 대금의 '전액'을 선불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비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지붕 제작과 설치비'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영세 업체에 많은 대금을 일시에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를 공사할 당시, 공급 업체의 모든 배경을 꼼꼼히 확인한 이후에 간신히 대금을 공사 진행하는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지붕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한 바 대로, 예상치 못한 각종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일정보다 훨씬 늦게 지붕 자재의 일부분만 도착하였고, 지붕을 설치할 인부들이 제 때에 나타나지 않았고, 중간 중간 대금을 올려 달라는 시위를 합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예정보다 3개월이 늦은 지붕 공사로 정말 속이 타 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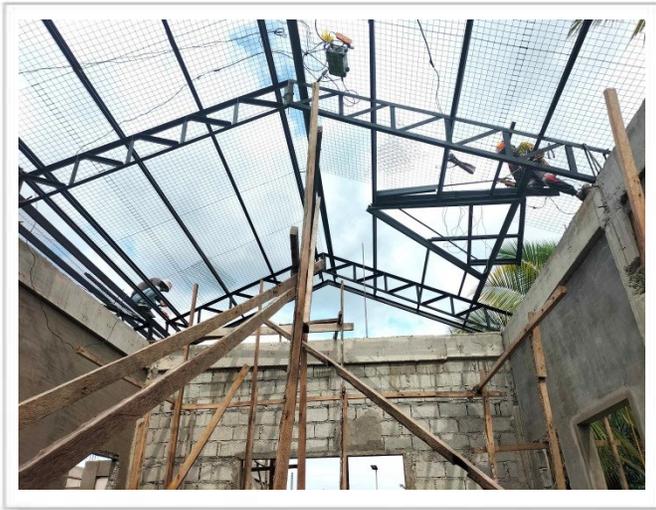
또한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지붕 공사도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욱 더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했는데, 각종 조건과 규격을 빼곡하게 적은 계약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에 불과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시정해 달라고 하면, 모든 자재를 교회 마당에 늘어 놓은 체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현지인들의 성품을 새롭게 알아가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원망과 좌절을 넘어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겨우 수소문하여, 달라고 달래서, 규격에 맞는 부품으로 예정보다 두 배의 시간이 더 지나서 겨우 지붕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달픈 경험으로 인해서, '마띠 은혜교회'의 건축을 시작하면서 땅의 기초를 다지는 초기 단계부터 '지붕 공사'에 대하여 많은 고심과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도저히 안 되겠기에, 여러 업체를 다양한 방면으로 확인하고, 거의 3개월 이상 걸려서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업체라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여 마침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금도 작업이 진척되는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약속한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작업자들은 공사장 한 편에서 숙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체 일정 중에 약 1/3 정도가 지났는데,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경험한 업체와는 사뭇 다르게 매우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시간이 빨리 지나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19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마띠 은혜교회' 건축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단 한 사람도 안전사고가 없으며, 마침내 이 성전을 통하여 마띠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대상 29:1)**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마띠 은혜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5.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